

우리 도서관인의 오늘의 사명



양 기 백
(미국의 회도서관)

1

내가 이번 「도협월보」에 글을 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 도서관이 우리 말로 된 문화를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 분과 의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글의 유산은 우리 도서관인의 전 재산이요 또 힘과 보람의 원천이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유산은 우리 민족의 호적(戶籍)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국제 도서관인이 되는 담보이며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룩하지 못하면 우리 도서관인은 밤낮 남의 재물을 지키는 부지런한 창고지기로 전락되고 눈치만 보는 기술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 이상 더 쓰기 전에 한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은 동지적인 입장에서 서로 생각한 것을 의론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여러 지혜있는 사람들의(지식이 많은 사람과는 다른 말) 말이 우리 나라 문화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릅니다.

Reischauer 교수(전 일본대사)가 하는 말이 “모방한 문화(borrowed culture)는 창조성(creative sense)이 없어 자신을 개량(Change)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상가이며 사학자(史學者)인 Toynbee 교수는 말하길 “모방하는 나라는 망했고 새 것과 자기 것을 만들려고 노력한 나라는 흥했다고 역사가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의 지도자는 자발적으로 국제적인 화목을 위하여 사대주의를 국시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무난히 오랜 세월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피와 뼈가 되어 우리의 독창성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얼까지도 자칫하면 잃어버리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고(思考)의 방향을 지배하는 암(癌)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 중에는 이 해독을 먼저 깨닫고 이를 깨우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실학자(實學者) 가운데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사상이 그때의 시대성과 사상적 그리고 정치적인 제약때

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이분들은 우리 민족의 병폐를 스스로 자각한 후에는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새로운 애국 사상을 자기 비판과 우리 문화 연구의 길을 통해 강조하고 찾으려고 했음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말로 지혜로운 선각자들이요, 본받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학자들이 역사는 긍정적(Affirmative)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역사에 있어서의 이 말은 우리의 좋은 점을 긍정적 태도로 보라는 말도 되거니와 특히 우리의 전통에서 잘못된 것과 나뻐든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던히도 업수히 여겼든(다른 나라에 비해서) 역사가 있었기에 이것을 극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역사적 유산이 나뻐다고 누가 말하면 매우 흥분하고 분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긍정적인 태도와 변증법적으로 본다면 다시는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수단을 강구해야겠다는 각성이 생길 것으로 압니다. 현명한(Mature) 지식인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것을 받아 들이는 태도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덜된(Immature) 지식인은 이것을 받아 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즉 “Disgrace(부끄러운 일)를 graceful(품위 있게)하게 받을 줄 아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사실 Anglo-Saxon 측은 우리보다 이 Disgrace를 잘 받아 넘기는 수양과 훈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인이 길에서 흑인에게 망신을 당할 때 여기에 달겨 들어 싸우지 않고 아무 말없이 웃고 피하며 여자에게 뺨을 맞아도 웃는, 소위 신사도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흥분이 앞섭니다. 이 점은 이덕무가 쓴 <친정관전서>에 우리를 중국인과 비교한 절에서 우리의 피부가 얇다는 말로서 표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박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단재 신채호는 말하길 “애국심은 마치 자기 집안의 족보를 아는 마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조상의 족보를 아는 자는 조상중에서 훌륭한 분에게 누(累)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으려 하며 또 성묘까지 하는 것은 자손들에게 선조의 위엄을 계승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는 족보나

성묘를 절대로 찬성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을 읽으니 수궁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 조상의 사적(史蹟)을 모르는 자는 자부심이 적어 자기 집안을 업수이 여기고 자포자기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민족이 자부심을 가지자면 한 씨족이 자기 집 족보를 숭상하는 것처럼 우리민족이 걸어 온 산 역사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애국심으로부터 소위 Nationalism 이 시작됩니다.

학자들은 민족주의(Nationalism)는 애국심과 통하면서도 같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민족은 애국심은 있어도 민족주의는 없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족보를 숭상하는 것처럼 애국심도 강하지만 족보가 한 씨족에 국한된 것처럼 애국심도 전체 한(韓)민족에 미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모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많이 국한됩니다. 민족주의는 국토와 언어와 정치의 독립을 전 국민의 힘으로 피비린내 나는 외래 침략에서 싸워 지키는 전통과 운동이 있을 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국심은 우리 말에 한문(중국 문화)이 침입한 것도 인정하나 민족주의는 이것을 배척하는 것에 견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애국심에서 더 나아가 민족주의운동이 필요한가 함을 Toynbee의 말을 빌려 설명하겠습니다. Toynbee는 “Nationalism은 사람에게 비하면 Measles(홍역)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Measles을 겪지 않으면 완전한 인체가 아니라는 말이요, 이것을 겪은 후에야만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홍역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것을 가려야 함은 물론입니다. (Nationalism도 여러가지) 애국심은 이와 반대로 홍역을 겪지 않아도 부모의 사랑과 고향의 다정함과 친척과 친구의 사랑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겠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민족은 이 Nationalism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선조들이 잘 했으면 고생이 적었을텐데 하고 조상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생은 우리의 선조가 홍역을 겪지 않고 우리에게 물려주어 홍역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홍역을 자진해서 그리고 촉박감(Sense of Urgency)을 가지고 온 국가가 통털어서 겪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우리 후세에게는 이 무서운 홍역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나라에 종(從)이 되기 쉬운 우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해군 원자잠수함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Rickover 계독은 말하길 민족운동을 Energy로 비했는데 이 Energy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Energy가 많은

민족은 약한 민족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2

이상과 같이 추상적인 이야기만 한 것은 우리 도서관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바야흐로 혁명기에 있는데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살기때문에 혁명에 대한 인식이 적음) 우리 도서관인이 이것을 호홉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에 큰 실수를 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 민족의 유구한 문화 전통을(글로된) 남겨 준 사람은 도서관인의 전신(前身)으로 볼 수 있는 검서(檢書)들과 실학자들입니다. 우리 선조중에 생원, 진사, 대과 합격자가 하늘에 별처럼 많았는데 그 분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미국의 도서관 학교에서는 Librarians and Libraries(도서관인과 도서관)의 과목을 설치하고 가르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학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요, 자기 나라 도서관인의 지도자를 자기 나라 후진에게 가르쳐, 선배들의 일을 본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서지와 고유문화에 이바지 한 분들을 한 과목으로 만들어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 나라에서 이 과목을 가르친다면 미국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각주에서 교사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주의 역사를 테스트해 보아야 하고 또 학생들은 미국의 역사와 주의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년의 역사라도 이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2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가 역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또한 인쇄술이 Gutenberg 보다 200여년이나 앞서서 발명됐고, 종이의 질이 좋아 중국에서는 조선 종이를 가장 귀중한 것(돈)으로 썼고,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예술품인 고려자기 같은 우수한 기술과 역사를 왜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세계의 인쇄술, 제지술, 책의 역사보다 먼저 우리의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연전에 본관(미국의회도서관)에서 세계의 제지술에 관한 전시를 하였는데 일본과 중국은 자기 나라의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으로 설명한 것, 연구한 책들과 제지기계, 원료등을 도서관에 보관하였다가 전시하였는데 우리는 겨우 일본 사람과 미국 학자가 쓴 책*에서 얻어 전시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남에 비해 훌륭한데 증거를 대라고

* 전시회에 내 놓은 것은 Nara Isamu. 朝鮮の紙, 평양, 1944. (백낙준 박사 소장본을 Copy한 것)과 Dard Hunter. A Paper-making pilgrimage to Japan, Korea and China. New York, Pynson Printers, 1936

하면 도무지 준비가 없어 내놓지 못하는데 번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세대에 해결하여 후세들이 몇몇하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서관인 중 제지술, 제본, 인쇄사 등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도서관인의 생명은 우리 말로 된 글의 유산을 찾고 지키며 활용시키는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말도 존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도서관인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맞추어 하루 속히 이에 대한 한 학문과 전문직을 양성, 이룩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겠습니다. 모든 정력과 돈을 여기에 쓰고 이것을 이룩한 후에 다른 나라 글에 대한 것도 차차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도서관인이 단결하여 우리의 생명을 서로 아끼고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인은 모름지기 한글로 된서적을 이해하고 활용하여야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4개 도서관학과에서 우리 도서관계에 없는 자료를 졸업논문으로 쓰게 하면 몇년 안에 도서관사업에 필요한 자료집이 나올 것입니다.

몇년내로 비교학이란 것을 각 방면에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또 미태학도 일본에서 제창하여 몇 사람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국학을 연구하는데 남의 것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말은 옳은 말이나 아직 한국학이 남의 것처럼 완성되지 않고 형태가 뚜렷하지 못하여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씨름은 제도화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씨름이 있다고 해서 막연히 학문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씨름을 국기로 만들고 제도화한 후에 우리의 특색과 일본의 것을 비교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form을 이룩하고 이 form에 질서를 가져온 후에야 완성품이며 다른 완성품과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완성품을 우리 것에서 만들자고 하는 것이 비교 이전에 해야겠다는 나의 주장입니다. 한가지 더 원망스러운 것은 항상 한국학을 중국, 일본에 비교하고 중국 일본학은 한국학에 비교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우리의 것을 열등하고 남의 종속국이므로 원바탕에 비교하라는 말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의 학문을 체계화시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것을 우리에게 비교하도록 해야겠습니다.

3

우리 도서관인은 오늘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하겠음

니다. 우리 말로 된 책이 얼마 안되나 우리의 정부학자, 또 온 민족이 각성하여 치중하면 몇년안에 10만 권 이상을 이루고, 남을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도서관에 20년전에 왔을 때 한국서적은 몇권 뿐이었는데 지금은 4만권이 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니 우리 후손에게 얼마나 몇몇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말로 된 진주들이기에…… 만일 내 나라안에 미국의회도서관 한국장서 만큼 자료를 소장하지 않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면 얼마나 국가적인 수치가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고 분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서문제의에 우리에게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도서관인이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한국학연구에 참여하는 것과 둘째로는 1973년부터 국법(國法)으로 한글로만 모든 것을 쓰게 되는데 이에 대한 도서관의 정비와 이용방법의 개선이겠습니다.

첫째 문제에 우리가 기여할 것은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금 몇년동안에 국보적인 고문서와 고서가 많이 발굴되는데 우리 도서관 전문가들이 이것을 서지학적으로 연구하고 주제를 설정시켜주어 각 부문의 연구자에게 보급시키고 또 이를 보관(귀중자료라고 신문에 나니)코 복본을 만들어 놓는 문제 등의 방안이 끝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처럼 천재, 인재 그리고 전쟁이 많은 나라에서 책을 지키고 연구하고 봉사하는 도서관인이면서 우리는 이것을 게을리합니까, 지금 이 방면의 연구가 다른 학자들도 하면 좋겠으나 우리 도서관인이 도맡아 해 내야 하겠습니다.

둘째 문제 역시 절실하고 큰 문제이며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저자명의 표기법이 통일 되어야 하고(유, 류, 임, 림, 양, 량 등) 책이름도 한글로 통일되어야 하겠고(성호사(쇄, 새)설, 증(정)비록 등) 한글 배열법도 작성하여야겠고 한자폐지로 오는 기입 주제 등의 변경문제를 도서관인이 출신 작성, 통일하여 출판인들과 학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도서관협회 산하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서 실천하여 한글 사용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도서관 전문가가 한가지 명심할 것은 학문은 오묘한 것이 아니란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실학자요, 실용학자이며, 경제학자이며, 경험학자입니다. 또 우리는 조적과 통일을 갈망하고 이를 신조로 하는 도서이용기술자이며, 까다롭고 신경질적으로 정리와 질서를 좋아하는 현대 과학자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것을 삼가하고 사실을 지적해 주는 서지학자이며, 사상이 진보적이고 어떤 시대의 역설에도 관대하며, 이것을 호흡할 수 있는 지식인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먼저 우리 집을 짓는데 모든 정력

과 돈을 써야겠습니다. 정확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자료와 기술로 아로 새기고 조각하여 남들이 우러러 보도록 건축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출판이 미약하고 한글의 연구가 다른 나라 언어 연구보다 뒤 떨어진다 하고 하나 부모가 설혹 자식이 미워도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고 우러러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것을 이룩해 놓으면 문화의 교류는 자연히 뒤따라 올 것입니다. 도서관의 장서가 외국의 것이 대부분이고 한국학에 관한 전문가가 없으면 오늘은 계속해도 내일에는 텅 빈 공터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 영원히 존재하나 다른 민족은 내일에 다 사라집니다. 이 영원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만이 내 자산이요, 재확요, 내 자본으로 남의 것과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국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고 실력자가 되던 외국에서도 이를 얻기 위해 나를 초청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한국의 도서관 전문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있으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에게서 감명스러운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중 제일 많이 듣는 것은 외국에 나오니 자연 애국심이 더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와 보니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라를 배우고 존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것을 배우고 존경해야겠다는

뜻이 생기고 애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내가 읽은 것 중에 우리가 참고하여 각성에 도움이 될까해서 영문을 인용합니다. 한가지 부탁은 우리를 욕하는 외국인을 책망하지 말고 우리에게서 배울 것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건축을 보고 그의 건축미를 몰라도 그 건물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외국인이 우리의 문화사 공부를 하지 않고도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교유의 것을 간직하여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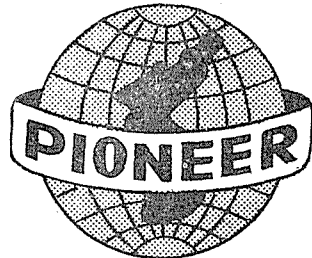
“Some marry Korean girls. But, too often Americans in Korea seem indifferent to the people around them. They may lay down their lives on the land, yellow soil of Korea, but nothing appears to alter their conviction that they have nothing to learn from Korea.” (“The forgotten from at the 38th parallel,” by Erik Amfitheatrof. The Reporter, April 18, 1968. p.23)

“미국사람들 가운데에는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자기들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도, 흥미도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은 뒤에 한국 땅에 묻힐지는 모르나 그들이 한국에서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편견을 고쳐 줄 만한 것이 한국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970

海外學術雜誌 予約案内

- ◎ 海外學術雜誌預約購讀에 관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 ◎ 海外學術雜誌 預約購讀에 관한限 世界の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費下가 願하는 대로 손쉽게 處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부와 單行本부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 備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 하여서도 빠른 情報를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費下께서 아직도 費下와 關聯을 맺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를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の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폰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 3553号
電話 (74) 4 8 5 5 · (75) 4 1 5 5